

완도군, 해양환경미화요원 제도 운영

해양쓰레기 신속한 수거·처리 위해 해양환경미화요원 4명 채용

보길면 첫 투입 시작으로 앞으로 12개 읍면 순회하며 수거 예정

완도군은 연중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 해양환경미화요원 제도를 운영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복 및 해조류 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완도군은 남해, 서해의 해류 흐름의 교차 지점인 지리적 특성과 태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완도군에서는 청정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7월 9일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 해양환경미화요원 4명을 채용했다.

해양쓰레기 수거는 해상의 어장 정화선 요원과 해변가의 해양환경미화요원이 핸티프로 팀으로 육상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상 어장정화선으로 옮겨져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양환경미화요원은 지난 10일 보길면에 처음 투입되어 본격적인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중에는 이동식 폐스티로폼 김용기와 운용하여 자원 재활용에도 한몫을 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미화요원은 적조, 태풍, 해양유류유출 사고 등의 재난 발생 시에도 긴급 투입되어 인력지원을 하게 된다.

완도군은 지난 2015년 5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선포식과 함께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를 발대

하여 자발적인 청정바다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완도군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요원을 투입하게 되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처리단 운영은 완도의 귀중한 유산인 청정한 바다와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기원의 자발적인 청소활동과 함께 공공부분의 쓰레기 수거를 통해 더욱 청정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사천리 물놀이장 14일 개장

내달 26일까지 매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무료

올해 진도군은 휴계 데크 면적을 2배로 늘리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 3종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 작업을 벌였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여름철 일몰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진도 사천리 물놀이장이 최고의 피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기간 멀리 떠나지 않고도 즐겁게 뛰어들 수 있는 피서지가 되도록 개장 준비와 운영을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사천리 물놀이장 인근에는 국가지정 명승지 제88호인 운립산성, 삼별초데 미공원과 오토캠핑장, 천년고찰 쟁계사 등 관광명소가 즐비하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장흥한우 전문인력 육성 ‘박차’

우드랜드 목재산업지원센터서 아카데미교육 개강식



장흥군은 지난 10일 편백숲 우드랜드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2018 장흥한우 아카데미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평생 장흥한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

련됐다.

오는 11월 14일까지 주1회씩 명품한우경영자과정 100명, 스마트한우경영자과정 22명 등 2개 과정 12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군은 장흥한우 기반을 더욱 공고

히 하고 토요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 판매체계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한우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친환경 사양기술교육과 유통, 판매 전략 수립 등 미인드 교육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한우 농가 역량 강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축산 시장이 기아할 방향을 알아보는 축산정책과 브랜드 가치 확산방안도 모색한다.

정종순 군수는 “이번 교육과정이 우리 장흥한우에 대한 사양기술항상과 유통 판매 기술 미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정남 진장흥한우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킴은 물론 한우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 시켜 장흥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품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장흥한우 기반을 더욱 공고

무안군, 일반음식점 영업 대상 위생교육

승달문화예술회관서 450여명

무안군은 지난 10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위생 담당을 포함한 3명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하는 위생관련 규정과 절차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중독예방 등 위생교육, 위생 등급제지정 등 위생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위생등급제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지정받은 섬진강 휴게소 팀장을 초빙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영업자께서는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음식의 맛 뿐 아니라 친절하고 청결한 경영으로 외식산업이 보다 발전하고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새마을회, EM 흙공으로 깨끗한 물길 보전

장흥군새마을회(회장 김명환)는 지난 9일 수질환경 개선과 오염방지 를 위한 실천하는 환경교육과 함께 수질정화를 위한 EM 흙공 만들기 실시했다.

부산면 복지회관에서 실시된 흙공만들기는 마을지도자부산면협의회(회장 위홍준), 부산면새마을부녀회(회장 김상순)와 함께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가족 40여 명과 부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했다.

EM 흙공은 효모균, 유산균 등 수십종의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있는 질 좋은 황토로 만들어져 하천의 수질 개선, 토양 복원,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만들어진 1,500여개의 흙공은 2주간의 발효를 거쳐 장흥군 내



하천에 투척될 예정이다. 장흥군새마을회는 영산강유역환경에서 실시하는 2018 민간단체 수질보전 감시활동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의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정화활동 캠페인, EM 활용 교육 등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 전체가 지역의 깨끗한 물길 가꾸기 위해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굴렁쇠놀이페, 전국 국악대회 종합대상

여수굴렁쇠놀이페가 제21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굴렁쇠놀이페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국 국악경연대회에 참여했다.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인 이번 대회는 전통무용, 기악, 가창, 풍물 부문으로 진행됐다.

굴렁쇠놀이페는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선보여 종합대상이자 최고 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전통연희단 굴렁쇠놀이페는 여수 관내·외 초·중·고 학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9년 창단 이래 이번 대회까지 7개의 장관상과 16회의 전국 대회 대상 등 93건의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시 관계자는 “굴렁쇠놀이페가 각종 대회에서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여수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